

朝鮮時代 『朱子大全』의 刊行에 관한 考察*

A Study on the Publication of *Jujadaejeon* in Joseon Dynasty

최 경 훈 (Choi, kyung-hun)**

◁ 목 차 ▷

1. 緒言	3.3 選集本 朱子 文集의 傳來와 刊行
2. 『朱子大全』의 朝鮮 傳來와 刊行	4. 朝鮮後期 『朱子大全』의 刊行
2.1 中國版 朱子 文集	4.1 元斗杓版(1635, 木板本)
2.2 『朱子大全』의 刊行 背景	4.2 洪啓禧版(1771, 木板本)
3. 朝鮮前期 『朱子大全』의 刊行	5. 結言
3.1 金安國版(1543, 을해자훈입보자본)	<참고문헌>
3.2 柳希春版(1575, 보주을해자본)	

< 초 목 >

이 논문은 조선시대 『朱子大全』의 간행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이며,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주자의 문집은 15세기까지는 조정의 구서 목록에 포함되는 희귀본이었으나 조선 초기부터 주자의 편저가 간행되고, 학습·주석되면서 인식이 높아졌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종종 즉위와 사립의 성장을 배경으로 두 차례 시도 끝에 121권의 天順版(1460) 『晦庵先生朱子大全』을 저본으로 1543년에 김안국이 처음 간행하였다.

둘째, 조선 전기에는 김안국, 유희춘에 의해 두 차례 활자본으로 인출되었다. 金安國版은 조선에 『朱子大全』을 처음 소개하여 이황의 『朱子書節要』 등 조선학자의 주자서 연구의 길을 열어 주었다. 柳希春版은 체계적인 교정을 거쳐 김안국판의 오류를 바로잡아 정본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조선 전기에 활자로 인출되는 것에 그친 것은 소개의 정도이며 적극적 보급의 단계까지 진전된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셋째, 조선 후기에는 원두표, 홍계희에 의해 두 차례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元斗杓版은 남송과 당시 조선의 현실을 동일시하면서 조선의 현실 타개책을 『朱子大全』에서 찾으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다. 기존에는 전란 이후 판본 수습을 통한 단순한 간행자 역할로 元斗杓版이 인식되었으나 개인 차원의 교정과 嘉靖版(1532) 수용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朱子大全』의 대량 보급을 가능하게 하여 『朱子大全』 내용의 사상적 공유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洪啓禧版은 元斗杓版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체계적인 교정을 거치는 한편, 『遺集』·『附錄』을 보충하는 등 조선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수합하여 『朱子大全』을 완성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조선시대 『朱子大全』의 간행은 단순한 간행의 반복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본을 만들고 이를 보급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국내외 판본의 수집과 함께 교정을 통한 연구가 동반된 과정이었다. 주자를 계승한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된 『朱子大全』의 교정·간행은 ‘소개-정문화-대량보급-완성’의 과정을 거치며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要語: 『朱子大全』, 『晦庵文抄』, 『紫陽文集』, 朱熹, 金安國, 柳希春, 元斗杓, 洪啓禧

* 본 논문은 2018년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보완 정리한 것임.

** 계명대학교 고문헌실 사서(lilimo95@daum.net)

접수일: 2018년 11월 18일 최초심사일: 2018년 12월 5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0일
서지학연구, 제76집, 53-77,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6.53]

<ABSTRACT>

Th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publication of *Jujadaejeon* (朱子大全), in Choseon dynasty. *Jujadaejeon* is a collection of works by Zhu Xi, the well-known Confucian scholar during Song Dynast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collection of works by Zhu Xi was rare books in 15th century, but with the accession to the throne of Jung-Jong and growth of the Confucians in 16th century, *Jujadaejeon* was first published in 1543 by Kim An-kuk by reference to Cheonsun (天順) edition (1460) composed of 121 volumes.

Second, *Jujadaejeon* was published twice in early Joseon dynasty with the metal type by Kim An-kuk and Ryu hee-chun. Kim an-kuk edition (1543) was first introduced to the scholars of Joseon and made possible the study of Zhu Xi and his books. Ryu hee-chun edition (1575) presented the original version by correcting errors of Kim an-kuk edition through the systematic recension. In addition to *Jujadaejeon*, three other collections of Zhu Xi's works were transmitted from China to Joseon including *Hoiamsimuncho* (晦庵詩文抄), *Jayangmunjip* (紫陽文集), and *Hoiamseonsaengjumungongsijip* (晦庵先生朱文公詩集). The publication of these three collections of his works was, however, temporary, being restricted to the 16th century when the spread of *Jujadaejeon* began.

Third, *Jujadaejeon* was published twice in late Joseon dynasty with the wood-block printing by Won du-pyo and Hong gae-hee. Won du-pyo edition (1635), the first publication with the wood-block printing, was distributed in large quantities to enable sharing of ideas. Hong gae-hee edition (1771) presented the complete version by correcting errors of Won du-pyo edition through the systematic recension and collect other books about the Zhu Xi and supplementing other works of Zhu Xi.

Publication of *Jujadaejeon* continued until the late Joseon dynasty with the recognition to the Zhu Xi of the Joseon confucian scholars, at the steps of introduction, making the original version, mass distribution, and making the complete version by collecting books and correcting errors.

Key words: *Jujadaejeon*(『朱子大全』), *Hoiammuncho*(『晦庵文抄』), *Jayangmunjip*(『紫陽文集』), Zhu Xi(朱熹), Kim an-kuk(金安國), Ryu hee-chun(柳希春), Won du-pyo(元斗杓), Hong gae-hee(洪啓禧)

1. 緒言

조선시대 수입된 수많은 문헌 가운데 조선 사회 전반에 가장 영향을 준 문헌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남송시대에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문집인 『朱子大全』을 들 수 있다. 주자는 조선 건국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입, 활용되었던 성리학 서적의 가장 대표적인 저자였다. 그가 편찬한 『近思錄』, 『資治通鑑綱目』 등은 경연의 진강 책자로, 『小學』·『家禮』와 四書集註는 과거 시험에 앞서 실시되는 學禮講, 典禮講 등 관학의 주요 교재로 사용되는 등 국가 운영의 기본 서적으로 활용되면서 조선에서 주자는 성리학의 중심인물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주자 개인의 삶과 학문이 담겨 있는 『朱子大全』의 간행은 사람이 몇 차례 사화를 겪으면서 중앙 정계와 향촌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던 16세기에 비로소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주자 문집의 정본인 『朱子大全』은 주자의 삶과 사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글이 수록된 문헌이었기 때문에 1543년에 처음 간행·보급된 이후 많은 주목을 받았고, 『朱子大全』의 이해·학습을 위하여 이황의 『朱子書節要(1556)』 등 다양한 조선 학자의 選集書가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편성·간행되면서 적극적인 수용의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오류가 지적되면서 오류 극복과 대량 보급을 위한 『朱子大全』의 중간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다. 단순한 重刊 단계에 머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오류를 바로 잡거나 『朱子大全』에 수록되지 않은 주자의 다른 글을 수집하여 보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등 조선 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동반되었다. 『朱子大全』의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선 학자들의 다양한 활동들은 문헌의 수용 현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을 이해하는 한 단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朱子大全』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朱子大全』에 대해서는 『朱子大全』의 간행이나¹⁾ 이황의 『朱子書節要』에서 시작되어 송시열로 이어지는 서간문 중심의 일련의 서적 편찬에 대해서,²⁾ 또는 『朱子封事』 등 일부 『朱子大全』 選集書에 대한 연구³⁾가 있었다. 그러나 『朱子大全』에 대해서는 간본

- 1) 김문식, “朝鮮本 『朱子大全』의 간행과 활용,” 『조선시대 문화사』 (서울: 일지사, 2007), 83-110.
최채기,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그 刊行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
최채기, “한국에서의 朱子文集 수용방식,” 『서지학연구』 제60집(2014), 169-206.
- 2) 윤병태, “退溪書誌의 研究,”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집(1977), 87-152.
윤병태, “退溪의 著書와 그 刊行 - 朱子書節要를 중심으로(退溪書誌의 研究 其二),”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7집(1978), 83-155.
류탁일, “『朱子書節要』 注釋 脈絡과 그 注釋書 - 외래문헌의 한국적 수용(2),” 『서지학연구』 제5·6합집(1990), 5-22.
류탁일, “『朱子書節要』의 注釋書에 對하여,” 『퇴계학논총』 제3집(1997), 45-63.
강문식, “宋時烈의 『朱子大全』 연구와 편찬 - 『朱子大全筭疑』·『節酌通編』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43집(2008), 71-95.
- 3) 강문식, “趙翼의 학문 경향과 『朱書要類』 편찬의 의의,” 『한국문화』 제39집(2007), 97-133.
정호훈, “조선후기 『朱子封事』의 간행과 활용,” 『한국사상사학』 제37집(2011), 75-111.
송희준, “『朱子書節要』와 『朱書百選』의 비교 연구,” 『퇴계학논집』 제15집(2014), 257-288.
권용인, “愚伏 鄭經世의 『朱文酌海』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5).

과 ‘校正凡例’와 ‘改刊凡例’를 마련한 유희춘과 홍계희의 교정을 중심으로 연구되면서 원두표가 간행한 최초의 목판본 『朱子大全』이나 『朱子大全』 이외에 중국으로부터 전래 간행된 선집본 주자 문집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자 문집의 정본인 『朱子大全』의 간행 배경, 각 판본의 특징과 의의, 한계를 중심으로 간행의 흐름과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원두표 간행의 목판본 『朱子大全』을 비롯하여, 『晦庵詩文抄』 등 『朱子大全』이 소개되던 16세기에 전래, 간행된 『朱子大全』 이외의 선집본 주자 문집 등을 검토하여 선행 연구에서 소략하거나 언급되지 못했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

2. 『朱子大全』의 朝鮮 傳來와 刊行

2.1 中國版 朱子 文集

중국판 주자 문집에 대해서는 束景南, 尹波 등 중국의 연구⁴⁾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최채기(2012)는 조선에서 간행된 『朱子大全』의 중국 판본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신두환은 중국의 馬德鴻·陳莉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판 주자 문집의 판본을 정리하기도 하였다.⁵⁾

주자의 문집은 그가 살아 있을 때인 1189년(淳熙 16)과 1198년(慶元 4) 무렵부터 편성, 간행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순희간본이 대만고궁박물관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순희간본에 수록된 주자의 가장 늦은 작품이 1189년 2월에 지은 『大學章句序』이며, 같은 해 3월에 지은 『中庸章句序』는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무렵 麻沙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⁷⁾

주자 사후에는 아들 朱在가 편성한 88권본(『勉齋集』 『朱先生行狀』), 문인 黃士毅가 편성한 150권본(『宋元學案』 『黃士毅傳』), 편자 미상의 165권본(『宋史』 『藝文志』) 등이 편성되었으나 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인 陳利用이 주자가 同安에 있을 때 지은 詩文을 모은 『朱子大同集』 13권은 元 至正刊本이 전한다.⁸⁾

주자 문집의 정본이며 조선에서 간행된 주자의 문집인 100권본은 1239년(嘉熙 3)에 王埜가 建安書院에서 板刻한 것이다. 이 原集에 1245년(淳祐 5) 王遂의 續集 10권, 1250년(淳祐 10) 徐幾의

4) 束景南, 『朱熹年譜長編 下』(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朱傑人, 『朱子全書 20』(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尹波·郭齊, “朱熹文集版本源流考,” 『西南民族大學學報』 제25집(2004), 447-453.

5) 신두환, “16世紀 朝鮮의 『朱子大全』 刊行과 그 學問的 動向 研究,” 『남명학연구』 제52집(2016), 43-78.

6) 尹波·郭齊(2004), 447.

7) 朱傑人(2002), 6.

8) 束景南(2001), 1461.

續集 1권, 1265년 余師魯의 別集 10권이 추가되면서 建安書院에서 121권의 『晦庵先生朱文公文集』이 1265년에 완성되었다.

建安書院版 간행 이후 주자 문집은 『晦庵先生文集』, 『晦庵先生朱文公文集』, 『朱子大全』, 『朱子集』, 『晦庵集』, 『考亭正集』 등 20여 종의 간행으로 이어졌고, 그 권수도 18권, 66권, 88권, 100권, 104권, 110권, 112권, 121권 등 10여 종에 있다.⁹⁾

明代 간본으로는 121권(原集 100권, 續集 11권, 別集 10권)으로 구성된 賀沈·胡緝의 天順版(1460) 『晦庵先生朱子大全』, 黃仲召의 成化版(1483) 『晦庵先生朱子大全』, 胡岳·張大輪의 嘉靖版(1532) 『晦庵先生朱文公文集』을 비롯하여 朱吾弼이 重編하고 朱崇沐이 간행한 109권(원집 88권, 속집 11권, 별집 10권)의 萬曆版(1605) 『晦庵先生朱文公文集』이 있으며, 清代에는 福建 榮芝堂에서 간행된 112권(원집 100권, 속집 5권, 별집 7권)의 康熙 元년(1662)의 『朱子大全集』, 蔡方炳·藏眉錫 간행의 112권(원집 100권, 속집 5권, 별집 7권)의 康熙 27년(1689)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康熙 52년(1713)에 李光地 등이 봉칙 편찬한 16권의 『朱子全書』, 雍正 8년(1730)에 주자의 16세손 朱玉이 원집·속집·별집을 전부 분류 重編한 『朱子文集大全類編』 등이 있다.¹⁰⁾

위의 판본들이 조선에 전래·유통되고 조선 간행의 저본과 교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1543년에 조선에서 처음 간행된 주자의 문집은 『朱子大全』을 서명으로 하는 121권본이며, 胡緝(明)의 天順版 서문(1460)이 권두에 수록되어 있으나 黃仲召의 成化版 발문(1483)이나 潘潢의 嘉靖版 발문(1532)은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賀沈·胡緝이 간행한 121권(原集 100권, 續集 11권, 別集 10권)의 天順版(1460) 『晦庵先生朱子大全』을 기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2 『朱子大全』의 刊行 背景

우리나라에 주자의 문집이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주자의 글이 전래된 것으로 안향(1243-1306)의 연보에 '1289년(충렬왕 15)에 손수 주자의 글과 주자의 眞像을 모사하였다.'¹¹⁾는 기록이 있다.¹²⁾ 고려에 주자성리학이 전래된 것은 충선왕이 萬卷堂¹³⁾을 세워 서적을 수집하고 이곳에 주자성리학을 전수 받은 姚燧·趙孟頫 등 강남 출신 주자성리학자들이 내왕하는 과정에서 元에 유학한 李齊賢 등 사대부의 교유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元帝室의 부마로 있다가 귀국

9) 尹波·郭齊(2004), 451.

10) 尹波·郭齊(2004), 451-452.

11) 『晦軒先生實紀(1819)』卷1 年譜. “庚寅 先生四十八歲 錄晦菴朱夫子書并畫眞像以歸 時朱子書新行於燕都 先生始得見之 潛心篤好 知其爲孔孟正脉 遂手錄其書又寫其眞像以歸.”

12) 이 기록은 주자와 주자학이 조선 성리학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던 조선 후기의 기록이고, 또한 주자의 글은 문집 이외에 宋·元代에 편찬된 서적에도 선정 수록되었기 때문에 안향이 문집을 적어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주자의 글을 초록해 왔다는 초기의 사실을 말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다.

13) 萬卷堂(1314-1340): 충선왕이 1314년에 원나라 갔을 때 연경에 세운 서재이며, 원나라의 인종이 죽으면서 충선왕도 티베트로 유배를 가면서 자연히 없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하던 역대 국왕, 元帝室의 공주, 국왕을 시종하였던 이세현 등 학자들에 의하여 성리학 서적이 유입되었다.¹⁴⁾ 그러한 교류 속에서 문집을 포함한 주자의 저술 또한 성리학 서적에 포함되어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자 문집의 전래·유통 사실은 1429년에 조정에서 『朱文公集』 등 서적을 구하자 안동의 尹妃가 『朱文公集』 32권을 진상하였다는 기록¹⁵⁾과 1451년 중국 사행단의 구서 목록에 『朱文公集』이 포함된 것에서 비로소 확인된다.¹⁶⁾ 이는 15세기 조정의 구서 목록에 주자 문집이 있었지만, 여러 서적 가운데 하나로 주자의 문집이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중심 자료가 아니었으며, 당시 주자 문집의 존재나 필요성이 인식되는 정도였을 뿐, 간행은 말할 것도 없이 보급 또한 저조한 희귀본으로만 존재하였음을 말한다.

주자 문집의 간행은 1515년(중종 10) 11월에 홍문관 부제학 金謹思가 『朱文公集』 등 18종의 서적이 홍문관에만 1질이 소장되어 있어 간행·반포를 요청하고 중종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시도되었으나 가뭄으로 인하여 都監이 혁파되면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¹⁷⁾ 그러나 16세기로 들어서면서 책을 구하는 단계를 극복하고 간행 시도 단계까지 나아간 점은 당시 주자와 그의 문집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진척이라 할 수 있다.

주자 문집의 간행이 16세기에 와서야 시도된 것은 다른 여타의 성리학 서적이거나 주자의 다른 저술들이 조선 초기부터 수입·주석·간행·유통·교육되는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다. 조선 초기부터 정부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자로 다종 소량의 서적을 인쇄하고 이를 다시 감영을 중심으로 한 지방 거점 도시에서 번각, 유통시키는 출판 시스템이 정착되어 갔고, 활자 인쇄술이 개선되면서 수많은 서적들이 활자로 인출되었다. 도가 서적인 『莊子虜齋口義』, 韓愈(唐)의 문집인 『朱文公校昌黎先生集』, 불경인 『妙法蓮華經』 등이 경자자나 갑인자로 인출되었지만, 주자의 문집은 인출되지 못하였다. 조선 초기까지 『近思錄(1370)』·『家禮(1403)』·『資治通鑑綱目(1422)』·『楚辭集註(1428)』·『孝經(1429)』 등 주자의 저술 다수가 활자나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그 가운데 59권 76책 분량의 거절인 『資治通鑑綱目』은 1422년·1427년 등 세 차례 이상 경자자로, 1434년 갑인자로, 1436년에는 병진자(綱)와 갑인자(目)로 인출되었다.¹⁸⁾ 『資治通鑑綱目』은 세종의 명으로

14) 정옥자, “麗末 朱子性理學의 導入에 대한 試考,” 『진단학보』 제51집(1981), 52-53.

15) 『世宗實錄』 卷44, 世宗 11年 6月 27日(壬寅).

16) 『文宗實錄』 卷8, 文宗 1年 7月 24日(庚申).

17) 『中宗實錄』 卷23, 中宗 10年 11月 2日(甲申), 『中宗實錄』 卷23, 中宗 10年 11月 4日(丙戌), 『中宗實錄』 卷25, 中宗 11年 5月 20日(庚子).

18) 경자자본 『資治通鑑綱目』은 현재 2종의 판본이 전한다. 사주변란이 쌍변(11행 21자)인 것과 단변(11행 22자)인 것이다. 사주쌍변인 것은 ‘經筵’이란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고, 59권 말미에 1428년(宣德 3) 閏4월의 변계량의 경자자 주자발이 있으며, 활자의 인출 상태 등을 볼 때 사주단변인 것보다는 앞선 판본이다. 『世宗實錄』을 보면 1420년 겨울에 시작하여 1422년 겨울에 경자자로 인출되었다는 기록과(『世宗實錄』 卷11, 世宗 3年 3月 24日(丙戌)) 1427년에 倭紙를 내어 주자소에 명하여 인쇄하도록 한 기록이다(『世宗實錄』 卷38, 世宗 7年 11月 3日(己巳)). 사주쌍변인 것은 1427년 주자소에 인출을 시작하여 1428년에 인출을 마무리한 판본으로 볼 수 있고, 1422년 인쇄를 마무리한 것은 현재 알 수 없으며, 사주단변인 것은 1428년 이후에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思政殿에서 訓議를 붙여 159권으로 증보되었으며, 본문의 綱目 가운데 綱에 해당하는 것을 인출하고자 별도로 수양대군에게 글씨를 쓰게 하여 병진자라는 금속활자를 주조하기까지 하였다. 『孝經』은 경연에서 자구를 풀이한 것을 내어 250부를 인출 반포되기도 하였다.¹⁹⁾ 이렇듯 조선 초기에 주자의 저술들이 다수 간행·유통함은 물론, 경연 교재로 활용되었고, 필요에 따라 일부 서적은 주석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그러한 주요 서적의 저자인 주자의 문집은 간행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²⁰⁾

15세기는 조선 건국 초기로 성리학적 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 서적을 중심으로 간행 대상 서적이 선정되는 단계였고, 개인 문집까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 서적에 대한 학습이 축적되고, 1506년 중종이 즉위하는 16세기는 이른바 士林이 중앙과 지방 관아는 물론 향촌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여 사회 모든 면에서 성리학적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실천 활동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동시에 후속 세대인 이황 등 학자들이 그러한 축적된 토대 위에 각기 문인 학맥을 형성하기 시작하던 성리학의 정착 시기였다. 그러한 학문 풍토가 조성되었던 16세기는 비록 조선에서 주자의 문집이 간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주자의 문집이나 주자의 글이 수록된 서적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문집 수록 기사를 선별하여 별도의 책자로 간행하는 選集書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시산부정 李正叔은 『朱子大全』의 권11-14에 수록된 봉사·주차·차자 35편 가운데 임금의 마음과 자세 등 국왕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심의 제왕학 관련 글 15편을 선정한 『朱子封事抄略(1517)』을 『二程封事』와 함께 인쇄하여 중종에게 올렸다. 朴英은 『朱子大全』 권74에 수록된 『白鹿洞書院學規』를 集解하여 『白鹿洞規解(1518)』를 간행하였다. 朴英의 集解는 중종이 직접 주자가 정한 서원의 규범인 『白鹿洞規』를 유럽에 게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16세기에 목판본·갑인자본으로 두 차례 간행되었다. 金安國은 『警民編』, 『正俗』, 『二倫行實圖』 등 향촌 사회의 교화에 필요한 서적을 다수 간행·보급하는 등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헌한 인물이며, 『朱子大全』 권74에 수록된 『增損呂氏鄉約』을 언해한 『朱子增損呂氏鄉約(1518)』를 간행하였다. 이 책은 편성 당시 진주, 나주, 금산 등에서 목판본으로 다수 간행되었고, 선조 초기 1574년을 전후한 시기에 세 차례 을해자로 인출되고 각 지방에서 다시 목판본으로 번각되는 등 17세기까지 12회에 걸쳐 간행이 이어졌다. 번각본 가운데 전주판을 보면, 『朱子增損呂氏鄉約』의 앞에 이황의 『退溪先生洞中族契立議』를 앞세운 경우도 있다. 이는 金安國에 의하여 주자의 향약이 보급되면서도 그 속에서 『朱子增損呂氏鄉約』을 근거로 ‘예안향약’, ‘서원향약’ 등 조선의 향촌 사회로 수용되는 현상을 볼

『資治通鑑綱目』은 역사서의 경전으로 인식되어 활발하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 『世宗實錄』 卷43, 世宗 11年 3月 22日(戊辰). “判府事許稠啓 孝經小學皆初學所當先習之書也 而小學講於科舉之時 故儒者皆不得已而讀之 若孝經則世之初學 專不讀習 請出經筵句解孝經刊行以教初學 上曰 然 命左代言 許誠曰 可令鑄字所印出二百五十秩頒行.”

20) 朱子の 문인 蔡模(宋)가 『齋居感興』 20수에 주석을 붙여 1237년(嘉熙 1)에 발문을 붙여 간행한 『文公朱先生感興詩』가 전래되어 1429년(세종 11)에 경자자로 간행된 바 있으나 이를 문집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수 있다. 『朱子大全』의 간행에 앞서 『朱子增損呂氏鄉約』이 선집·보급된 것은 향촌 사회의 공동체 조직 운영에 성리학적 질서를 잡아 나가기 위한 실천적 서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²¹⁾

위의 3종의 선집서는 『朱子大全』의 간행에 앞서 각각 국왕의 정치, 서원 교육의 규범 제시, 향촌 질서의 확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단순 발췌, 口訣·諺解, 集解의 방식으로 간행, 유통된 사례들이다. 선집서 편성자들은 왕실의 종친, 중앙 조직의 관료 학자로 주자의 문집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분이었다. 주자의 문집이 간행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제한적인 유통이 이루어졌고, 전체를 간행하기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개인의 필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문집 수록 기사를 선별 편집하는 선집서가 등장하면서 주자와 그의 글이 수록된 문집에 대한 인식과 수요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주자 편저의 도입과 간행, 학습과 주석이 진행되는 한편, 16세기에 중종이 즉위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자 문집의 간행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성리학을 사상적 이념으로 하는 사람이 중앙 정계와 향촌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간행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으며, 그 결실은 성리학적 질서를 향촌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서적의 간행과 보급 등 다양한 공헌을 하였던 김안국이 사화를 겪으면서 관직을 떠났다가 교서관 제조로 복귀하면서 최초의 朝鮮版 주자 문집인 乙亥字混入補字版 『朱子大全』의 간행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3. 朝鮮前期 『朱子大全』의 刊行

3.1 金安國版(1543, 을해자혼입보자본)²²⁾

이 金安國版 『朱子大全』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주자의 문집이다. 간행자 金安國이 1518년 중국에서 구해와 간행을 시도하였으나 이듬해 기묘사화로 물러나면서 간행이 중지되었다가 1537년 다시 敍用되어 간행을 추진하였으며,²³⁾ 1543년 6월에 權櫟(충재종택), 權應挺(봉좌문고, 완질) 등에게 내사되었다.²⁴⁾

21) 향약은 국가의 기본 뿌리가 되는 마을 단위에서 한 달에 한번 모여 성리학의 실천 덕목을 강조하고 그 선악의 사례에 대한 포상과 처벌을 병행하여 개인의 가치관을 성리학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때는 도덕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질서를 마련하던 초기의 일인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고을에서 제작되어 수령의 서압을 받은 필사본 향약이 다수 전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19세기를 전후하여 서양 문화가 유입되던 시기였다. 이질적 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대응 방식의 하나로 향약을 강조했다는 것은 16세기에 실시된 향약의 보급이 그만큼 사회 변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음을 말해 준다.

22) 판본의 명칭은 '각 판본의 교정과 간행을 주도한 인물의 이름'으로 판본명을 붙인 최채기의 선행 연구(2012)에 따라 각각 金安國版(1543), 柳希春版(1575), 元斗杓版(1635), 洪啓禧版(1771)으로 하였다.

23) 『宣祖實錄』, 卷8 宣祖 7年 4月 23日(丁卯).

24) 內賜記: 嘉靖二十二年六月日 內賜 議政府左參贊 權櫟 朱子大全 一件 命除謝恩 都承旨 臣 洪[花押] (충재종택).

이 金安國版은 123권(目錄 2卷, 原集 100卷, 續集 11卷, 別集 10卷) 95책이며, 권수제는 ‘朱子大全’이다. 別集 목록에 이어 1265년(咸淳 元年) 建安書院 山長 黃鏞의 발문이 있다. 이는 조선 최초 간행의 주자 문집인 『朱子大全』은 주자 문집이 121권으로 편성되어 1265년 간행된 建安書院版에서 시작된 판본 계통이며, 권두에 天順版을 중간하였던 胡楫의 ‘重刊朱子大全序(1460)’가 있어 1460년에 賀沈·胡緝이 建寧에서 중간한 天順版을 저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天順版 서명이 ‘晦庵先生朱文公文集’에서 ‘晦庵先生朱子大全’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天順版은 반엽이 11行 22字로 金安國본의 10行 18字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본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²⁵⁾

金安國版 『朱子大全』의 간행과 보급은 권벌·이황 같은 당대 명현들조차 보기 힘들었던 희귀 도서인 『朱子大全』이 학자들에게 알려지면서²⁶⁾ 『朱子大全』을 통하여 朱子를 이해, 학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으며, 조선 학자들의 선집서와 주석서의 편성과 간행 등 주자서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朱子大全』을 하사받은 권벌(1478-1548)은 書眉에 교정 주석을 남기고 있으며, 『冲齋集』 권2의 雜著 『朱子大全考疑』에 그 내용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김인후는 『朱子大全』을 하사받고 권14에 수록된 『經筵講義』를 별도로 뽑아 『朱子經筵講義(1549)』를 간행하였다. 이황 또한 주석을 담은 서간문 選集書인 『朱子書節要(1556)』를 편성하였고, 기대승은 詩를 제외한 산문 選集書인 『朱子文錄(1557)』을 편성하였으며, 성혼은 초학자를 위한 입문서인 『朱門旨訣(1571)』을 편성하였다. 모두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朱子大全』 연구 결과이며,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이 金安國版을 통하여 주자의 문집을 처음 접하면서 교정·학습과 함께 이해를 위한 選集書를 편성하였던 것이다.

『朱子大全』이 처음으로 간행·보급되면서 『朱子書節要』 등 다수의 選集書가 편찬·간행되어 학습과 교육에 활용되면서 원본인 『朱子大全』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朱子大全』은 123권 95책 분량의 거질이며, 활자 인출로 인한 제한적 배포는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연구를 통하여 오자 등 金安國版의 오류도 지적되면서 重刊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²⁷⁾ 그러한 수요와 오류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 30여년이 지나 두 번째로 간행하게 되는 것이 1575년에 補鑄乙亥字로 인출된 柳希春版이다.

25) 최채기(2012), 29.

26) 權轍은 『朱子大全考疑』에서 ‘이때 비로소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적고 있고, 이황은 『朱子書節要序』에서 ‘『朱子大全』이 우리나라에 유행된 것은 아주 드물었으므로, 선비들이 얻어 본 것은 아주 적었다. 1543년(중종 38)에 종종 대왕이 校書館에 명하여 인쇄·반포하도록 하였으므로 비로소 이런 책이 있음을 알고 구하였으나, 아직껏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책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는 그만큼 『朱子大全』이 희귀 도서였음을 말해준다. 金安國版이 보급되지 않았다면 이황의 『朱子書節要』 등의 선집서 편성도 이루어지지 않아 조선에서의 주자서 연구는 늦어졌을 것이다.

27) 金安國版에는 교정 결과가 반영되는 두주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柳希春版과 같이 체계적인 교정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처음 간행하는 만큼 인출하여 보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2 柳希春版(1575, 보주올해자본)

柳希春版은 『朱子大全』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²⁸⁾ 기존 판본에 대한 오류 수정 제기에 따라 이루어졌다. 유희춘은 교서관 제조가 되고서 『讀杜詩愚得』을 먼저 인출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노수신에 이어 허봉으로부터 『朱子大全』 인출 요청을 재차 받고서 생각을 바꾸었으며,²⁹⁾ 다음날인 1573년 1월 12일에 경연에서 ‘儒林의 인출 요청’이라는 명분으로 건의하여 선조의 인출 허락과 함께 ‘이전의 판본에는 오류가 많으니 교서관 제조인 유희춘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교정’하도록 하였으며,³⁰⁾ 인출 부수는 105건으로 정해졌다.³¹⁾

유희춘은 1573년 선조에게 『朱子大全』의 인출을 요청하기 이전부터 여러사람들로부터 『朱子大全』 등 다양한 주자 문집의 판본을 수집하여 검토하고, 주석을草하고, 이황의 주석을 필사하였다.³²⁾ 그러한 柳希春의 노력은 오류가 적은 정본 『朱子大全』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며, 국왕의 신뢰와 스승인 김안국을 계승한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희춘은 곧바로 2월 7일부터 校書正字 崔慶會와 함께 순차적으로 교정을 진행하였다. 동년 7월 26일에 최경회가 下鄉하여 10월 3일에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校書著作 曹景中과 『朱子大全』의 교정을 진행하였고, 동년 10월 4일에 최경회를 『朱子大全』 監校로 삼았으며, 10월 초에 1차 교정을 마무리하였다. 10월 9일부터는 1권부터 선별적으로 再考定에 들어가 11월 초까지 원고본 마련을 위한 교정은 계속되었다.

다음 해인 1574년 2월부터는 교서관 唱准 金世傑이 인출된 것을 가지고 오면서 인출본을 교정하기 시작하였다. 1574년 9월 4일에 『續集』·『別集』까지 인출본 교정을 대략 마무리하였으며, 이후에도 교정은 계속되어 1574년 12월 25일 『朱子大全』 21권부터 27권까지를 교정했다.’라는 기록까지 보이며, 1575년 7월에 내사되었다.³³⁾ 1573년 1월에 왕명이 있을 후 30개월이 지나서야 체계적인 교정을 거친 柳希春版 『朱子大全』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28) ‘1544년에 『朱子語類』를 하사받은 사람이 90인(『眉巖日記草』 戊辰 四月初十日)이었고, 1575년 『朱子大全』의 인출 부수도 105건인 점을 보면, 1543년 『朱子大全』의 인출 수량도 100건 내외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9) 『眉巖日記草』 癸酉 正月 十一日. “許翰林蒞來謁…許美叔以爲校書館宜印出朱子大全 余曾聞盧判書亦云當印朱全 余以讀杜愚得爲先 到今思之 朱全之印良是.”

30) 『眉巖日記草』 癸酉 正月 十二日. “臣爲校書提調…儒林咸願印出 朱子大全 請印何如 上曰 當印 但校書館官員校正未精 印出多誤 今則卿爲提調 必精校矣 卿學問超出 無書不讀 希春曰 往在中廟癸卯年間 嘗印 朱子大全 而其時校書之員 多草率不精 識者恨之 今則得李滉校定之字 并以愚臣管見 合衆長而正之 然許多冊 豈能盡精乎…(中略)…夕政院啓曰 經筵官所啓 朱子大全印出事…(中略)…無發落取稟 傳曰 朱子大全印出事 依啓.”

31) 『宣祖實錄』 卷7, 宣祖 6년 1월 29일(庚戌). “校書館以提調意 啓請朱子大全印出件數 上書下進上五件 國用一百件.”

32) 『眉巖日記草』 戊辰 四月初五日. “是日 始讀朱子大全封事一首”, 戊辰 四月 十六日, “金蘭玉來受退溪書釋寫資而去”, 戊辰 四月 十七日, “草註朱全至十一卷末”, 己巳 十二月 十六日, “昨日朴昌孫來受退溪朱全說寫次而去”, 己巳 十二月 十八日, “訓導尹希溫來訪 余令書朱全退溪說”

33) 內賜記: 萬曆三年七月日 內賜工曹參判柳希春朱子大全一件命除謝恩 右承旨臣鄭[花押].(천리대학교도서관 소장)

이 柳希春版은 이황의 교정 자료를 바탕으로 유희춘이 주관하여 최경희, 황경중 등 교서관 관원의 체계적인 교정을 거친 것으로 이전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이전의 金安國版과 달리 권수에 ‘朱子文集語類校正凡例’에 7개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교정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정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1573년 11월에 마무리된 보주을해자로 인출되어 金安國版보다 글자가 선명하다. 그러나 金安國版의 오류를 바로 잡아 정본 『朱子大全』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소량인 105권이 인출되었고, 그나마 10여 년 뒤의 임진전쟁으로 유통 수량이 줄어들면서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3.3 選集本 朱子 文集의 傳來와 刊行

16세기 『朱子大全』의 간행은 주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불러와 『朱子大全』 수록 기사를 선별한 선집본을 비롯하여 주자에 관한 서적의 수입과 간행으로 이어졌다. 선집본으로는 吳訥(明)의 『晦庵詩文抄』, 편자 미상의 『晦庵先生朱文公詩集』과 『紫陽文集』을 들 수 있다.³⁴⁾ 이외에도 주자의 전기 자료인 『太師徽國文公年譜[梁山, 1566]』, 『朱子實記(光州, 1570)』가 간행되었으며, 이황이 주석을 붙인 黃幹(宋)의 『朱子行狀[星州, 慶州]』이 편성, 간행되기도 하였다. 모두 『朱子大全』 간행 직후에 간행된 책들로 『朱子大全』 보급 이후 형성된 주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보여준다.³⁵⁾ 여기서는 『朱子大全』을 보급하기 위한 조선 학자들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에서 전래되었다고 판단되는 선집본 주자 문집 3종에 대하여 살펴본다.

3.3.1 『晦庵詩文抄』

『晦庵詩文抄』는 吳訥(明)이 『朱子大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려 뽑은 選集書이다. 조선에 전래된 것은 1482년(成化 18) 直隸監察御使 丘山이 太平郡守 周鳳 등에게 重刻하도록 한 명판본이다.

34) 『晦庵詩文抄』는 편자가 있지만, 『晦庵先生朱文公詩集』과 『紫陽文集』은 편자를 알 수 없다. 편자가 조선인이라면 전래된 선집서가 아니라 조선인 선집서로 봐야 한다. 그러나 당시 높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朱子大全』을 선집하여 목판으로 간행하면서도 편자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편자를 조선인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인 선집서로 보았다.

35) 주자 편저 가운데 四書類를 제외하고 조선 전기에 18종이 간행되었다. 그 가운데 15세기에 간행된 것은 『근사록(1370)』, 『가례(1403)』, 『자치통감강목(1422)』, 『송명신언행록(경자자)』, 『소학(1427)』, 『초사집주(1428)』, 『효경간오(1429)』, 『주자감흥시(1429)』, 『주문공교창려선생집(1438)』, 『주역참동계고이(갑인자)』 등 10종이다. 16세기에 간행된 것이 『동몽수지(1517)』, 『주자대전(1543)』, 『주자어류(1544)』, 『연평담문(1554)』, 『사상체선생어록(갑진자)』, 『이락연원록(1562)』, 『이정전서(1566)』, 『의례경전통해(1570)』, 등 8종이다(최경훈, “朝鮮前期 朱子 著述의 刊行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42집(2009), 453-489). 15세기 간행된 것이 역사서, 문학, 성리학 일반에 관한 것인 반면, 16세기 간행 편저는 성리학 일반보다는 『주자대전』을 포함하여 주자에 관한 것들이다. 이는 『주자대전』의 보급을 계기로 주자 전기를 포함하여 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자 연구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책의 구성은 晦庵詩抄序(吳訥, 1435), 晦庵先生五言詩抄後序(陳敬宗, 1435), 晦庵先生五言詩抄(1卷), 重刊晦庵先生文抄序(丘山, 1482), 附錄, 總論, 晦庵文抄(卷1-7), 晦庵文抄後序(吳訥, 1430)로 되어 있으며, 본문은 1430년(宣德 5) 10월에 抄略한 『晦庵文抄』 7권, 1435년(宣德 10) 7월에 편성한 『晦庵先生五言詩抄』 1권, 陳淳·李方子·吳澄·鄭聘의 朱子評이 수록된 附錄으로 되어 있다.³⁶⁾

조선에서의 간행과 관련하여 임란 이전의 책판목록인 『攷事撮要(1568)』를 보면, 海州條에 ‘晦庵詩文抄’, 尙州條에 ‘朱晦庵集’이라는 책판이 수록되어 있어 1568년 이전에 해주와 상주에서 각각 주자 문집이 판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³⁷⁾

이와 관련하여 현존본을 조사해 보면, 일본 岩懶文庫에 4책(晦庵先生五言詩抄 1卷·晦庵文抄 7卷)의 완질본, 내각문고에 4책(晦庵先生五言詩抄 1卷, 晦庵文抄 卷3-7)의 나질본이 있으며, 국내에는 연세대 도서관에 3책(晦庵先生五言詩抄 1卷·晦庵文抄 7卷), 영남대 도서관에 2책(晦庵文抄 7卷), 국중에 1책(晦庵文抄 卷1-4), 계명대 도서관에 1책(晦庵文抄 卷1-4), 규장각에 1책(晦庵文抄 卷5-7)이 소장되어 있음이 목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太平郡 重刊本을 저본으로 번각하였기 때문에³⁸⁾ 동일 책판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미와 후구의 刻字 등 판식을 비교하면 각기 다른 책판에서 찍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 內閣文庫本에는 판심의 후구 부분에 황해도 谷山을 지칭하는 ‘谷’·‘谷山’·‘谷山令’이 새겨져 있어 황해도 해주관임을 알 수 있는 반면, 岩懶文庫本에는 ‘x’·‘t’·‘+’ 등이 새겨져 있어 해주판과는 다름을 알 수 있는데, 두 책 모두 조선에서의 간행과 관련된 발문 등 기록은 없다.³⁹⁾ 국내 소장본을 보면, 영남대본에 판심의 후구에 ‘谷’·‘谷山’ 등이 새겨져 있어 내각문고본과 같이 해주 간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규장각본(권5-7의 1책, 奎中 2452)에는 권말에 尙州牧使 金彦瑠가 1549년(明宗 4) 작성한 발문⁴⁰⁾이 수록되어 있어 『攷事撮要』 尙州條에 수록된 책판에서 찍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상주판(규장각본)의 판심 후구에는 해주판과는 달리 일본 岩懶文庫本의 후구에 나타나는 표기와 동일한 표기(+: 文抄 卷5의 5·6장 하후구)가 새겨져 있다. 이러한 후구에 새겨진 글자 표기와 발문을 통하여 조선에서는 이 太平郡 重刊本이 전래되어 1549년(명종 4) 尙州에서, 그리고 1568년 이전 비슷한 시기에 海州에서 각각 번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6)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集部』(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8), 214-216.

37) 두 책판명이 달라서 다른 책일 수도 있겠으나 동일한 책을 책판목록에 달리 기술하였음을 뿐이다. 해주의 책판은 1585년 『攷事撮要』까지 수록된 반면, 상주의 책판은 『古書冊版有處攷[1700]』, 『古冊版有處攷[1780]』에 ‘晦菴詩文 拾壹貼拾捌張 四 刑秩’로 『攷事撮要』와 표기 서명을 달리하여 18세기까지 수록되어 있는 차이가 있을 뿐 동일 저본으로 번각한 것이다.

38) 이들 도서는 동일한 판식을 보이며, 丘山이 지은 重刊序(1482)가 수록되어 있다. 다만 국가도서관 등에 朝鮮版의 저본이 되었던 해당 중간본이 소장되어 있다.

39) 藤本幸夫(2008), 214-216.

40) 경상감사 鄭萬鍾의 요청으로 간행을 시작하여 후임 감사인 沈通源에 이르러 간행을 마치고 판각처의 수령이었던 상주목사 김언거가 발문을 적었다.

『晦庵文抄』에는 『朱子大全』 原集에 수록된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의 賦·詞·操의 운문 4편과 封事·銘·序·記 등 산문 90편 등 모두 94편이 수록되어 있다. 書簡(15)·序(11)·記(25)·跋文(15)·墓誌銘(7)이 73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편성 순서는 권85의 銘·箴·表가 앞에 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朱子大全』 순서를 대체로 따르고 있다. 題名은 『辛丑延和奏筭四』의 일부를 수록하면서 내용을 드러내는 ‘奏行社倉’으로 수정한 것을 제외하면 『朱子大全』을 따르고 있다.

<표 1> 『晦庵文抄』 체제와 구성⁴¹⁾

권차	구분	편수	권차	구분	편수
1	賦	2	4	序	11
	詞	1	5	記	25
	琴操	1	6	雜著	3
	銘	5		跋	15
	箴	1	7	碑文	1
2	表	2		墓表	2
	封事·奏筭	3		墓誌銘	7
3	書	15	소계		94

『晦庵詩文抄』는 1543년 『朱子大全』 조선 간행 이후 자체적인 초락본이 만들어져 유통되기 이전에 중국에서 편간된 선집서가 輸入·廣布된 사례이다. 조선에서는 1543년 『朱子大全』이 처음 간행·반사되었고, 그로부터 6년 뒤에 이 중국본 선집서가 간행되었던 것이다. 이 『晦庵詩文抄』가 이후에 재차 간행되지 않았던 것은 『朱子大全』이 보급 연구되어 조선 학자들의 자체적인 초락서가 편간되면서 이를 대체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지금도 국내외에 몇 종이 전하고 있어 인쇄가 다수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인물의 일기나 편지에 관련 기록이 일부 전한다. 이문건은 1551년 정월 26일(갑인)에 서문을 적고(畫冊紙間三丈 書晦庵詩抄序 落丈補入), 동월 29일(丁巳)에 제목을 적었으며(題畢明遠通鑑目·眞寶目·晦庵詩文抄目), 1561년 정월에는 책의 인출 부탁을 받기도 하였으며(柳直卿送紙 求印晦庵文云), 1561년 7월 18일에는 읽기를 마쳤다(畢考晦庵文).⁴²⁾ 이항은 1566년에 金八元(1524-1589)에게 보낸 편지에서 ‘『晦庵文抄』이 있다는 것을 들어왔으나 못 보다가 이제야 입수하게 되었다’⁴³⁾고 하였으며, 유희춘은 1570년에 상주목사(金億齡)에게 『晦庵詩』를 印送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 등⁴⁴⁾ 16세기 간행 이후 조선 학자들에게 알려져 널리 읽혔음을 알 수 있다.

41) 晦庵先生五言詩抄를 제외한 문초 7권 수록 내용임.

42) 이문건, 『默齋日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43) 『退溪續集』 권5, 『答金舜舉 丙寅(1566)』, “晦菴文抄題目 當依示 但雖數字之題 病困自力爲難 且久聞有此書而未覩 今幸入手 未忍卽還癡 姑隨行篋 俟還山日題訖回納 不至汚失也 …”

44) 『眉巖日記草』 庚午 6月 24日. “余於尙州稱念盧監司 且乞晦庵詩印送.”

3.3.2 『晦庵先生朱文公詩集』

『晦庵先生朱文公詩集』은 『朱子大全』에서 韻文部 가운데 권1의 詞 1수, 賦 3수, 琴操 1수를 제외하고 詩·樂府만을 모아 10권으로 편차하고, 『朱子大全』의 別集 권7에 수록된 詩 전체는 권10에 이어 제18-22장까지 『晦庵先生朱文公詩別集』으로 별도 수록하고 있는 주자의 시집이다. 『朱子大全』과 비교하면 제목을 ‘詩集’으로 한 것과 권말의 考異를 기준으로 볼 때, 권말제 표기의 위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이 책에는 본문인 주자의 詩 이외에 책의 편찬이나 간행과 관련된 편자 표기, 序跋이나 刊記가 없어 편찬과 간행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 책 자체에는 序의 일부에 ‘一之(권8의 제2·9·10장 상단)’ 등 불완전한 각수명이 새겨져 있을 뿐이다. 다만 책판 목록이 수록된 『攷事撮要(1568)』에 ‘朱子詩集’이란 서명으로 慶州條에 수록되어 있다.

楊守敬(淸)의 『日本訪書志』 권14에 수록된 朝鮮本 『晦庵先生朱文公詩集』의 書誌에는 ‘末有嘉靖庚申至月慶州府尹龜巖李公剛而所贈, 此書板在是府’라는 기록이 있어 1560년(명종 15) 12월 이전에 경주에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⁵⁾ 목서 기록에서 책을 보내준 사람이 李禎(1512-1571)이라는 사실은 책의 간행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는 이황의 문인이면서 지방관으로 부임할 때마다 주자의 저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드문 성리학 서적을 간행한 인물로, 간행 종수가 21종에 이른다. 그의 행장에도 ‘우리나라에 간행이 미진한 것이 있으면 이황에게 편지를 보내 訂定하고 더불어 발문을 지어 부임한 고을에서 반드시 간행하였다’고 하면서 간행 서적을 부기하였는데, 그 가운데 ‘朱子詩集’이 있다.⁴⁶⁾ 『攷事撮要』의 경주에 수록된 『朱子詩集』이라는 서명과 동일하여 이 책의 간행자는 李禎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⁷⁾ 李禎은 1560년 9월부터 1563년 1월까지 경주 부윤으로 있었다.

45) 영남 문인의 장서 가운데 권말에 이와 같은 장서기를 남긴 대표적인 인물로 조목, 김부의, 배삼익 등을 꼽을 수 있다. 조목은 『列子虞齋口義』에 東皐散人, 趙氏穆士敬章 등 장서인과 함께 ‘戊午(1558)仲夏李仁仲/所贈庚午改衣釐/爲上下 芙蓉山人’, 김부의는 『學菴通辨』에 光山後學·金氏富儀·愼仲 등의 장서인과 ‘萬曆四年丙子(1576) 崔見叔令公 宣化湖南 而板本在全州 借印得之 其年八月下浣誌’, 배삼익은 『太師徽國文公年譜』에 ‘嘉靖丙寅(1566)秋密陽府使李先生玉應印贈’의 장서기를 남기고 있다.

46) 『龜巖先生文集』 卷2, 行狀. “中朝性理之書 或有未盡刊行於吾東者 亦與退溪往復訂定 相與跋之 如孔子通紀 二程粹言 程氏遺書外書 伊洛淵源續錄 濂洛風雅 擊壤集 延平答問 朱子詩集 范太史唐鑑 丘瓊山家禮儀節 薛文清讀書錄 胡敬齋居業錄 皇明名臣言行錄 理學錄 醫無閭先生集等書 必入梓於所歷州府 雖在散地 若見性理書可羽翼經傳 而無板本者 亦力勸傍邑守宰 必使刊行而後已.”

47) 李禎은 1553년 청주목사로 있을 때 『文公朱先生感興詩』라는 책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행장에 언급된 ‘朱子詩集’이 청주 간행의 『文公朱先生感興詩』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 책은 李禎이 주자의 詩 가운데 ‘感興詩’ 20수를 먼저 간행한 후, 이황의 건의에 따라 ‘擬古八首’, ‘雲谷雜詩十二首’, ‘武夷權歌十首’ 등이 增錄되어 모두 34장에 불과한 소량의 책이다. 주자의 詩 일부를 뽑았다면 ‘朱子詩集’보다는 권수제를 따라 ‘朱子感興詩’ 또는 ‘感興詩’로 표기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朱子感興詩’를 간행한 바 있는 李禎이 1560년 9월에 경주부윤으로 부임한 후 바로 판각하여 12월에 마무리하고 책을 찍어 보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책은 한 차례 간행되었을 뿐 이후 재차 간행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이 詩集이 『朱子大全』에 수록된 韻文의 거의 전체인 詩·樂府만을 편의적으로 뽑아 편집자의 의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발췌물이고, 편자 또한 알려지지 않아 책의 公刊이 가지는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朱子大全』이 비록 소량의 활자본이긴 하지만 1543·1575년 두 차례 간행되어 내사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었던 것도 한 차례 간행에 그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3.3 『紫陽文集』

『紫陽文集』은 『朱子大全』 수록 기사에서 詩를 제외하고 봉사, 차자, 서간, 잡저, 서문, 발문, 제문, 묘지명 등 423편이 선정된 『朱子大全』 選集書이며, 10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을 비롯하여 일본의 궁내청 서릉부와 봉좌문고에 완질이 전하고, 그 외에 계명대·고려대 도서관 등에 낙질로 전한다.

『紫陽文集』에는 본문 이외에 책의 편찬·간행과 관련된 편성자, 서·발문, 간기 등 어떤 기록도 없어 편성과 간행의 경위를 알기 어렵다. 문헌 기록에도 누가 선집하여 간행한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고, 책만 전하고 있다. 책의 간행과 관련해서는 『攷事撮要(1585)』 全州條에 서명이 보이며, 柳希春의 『眉巖日記草』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柳希春은 1567년 10월에 前 전라감사 姜暹으로부터 『紫陽文集』 10책을 받았다.⁴⁸⁾ 강섬은 1566년(명종 21) 8월 28일 전라도관찰사로 임용되었으니⁴⁹⁾ 아마도 재임 시절에 간행한 책 가운데 하나를 보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1568년 5월에 유희춘은 주자의 글을 뽑아 『朱子文錄』을 편집한 바 있는 기대승의 말을 듣고 『紫陽文集』에 주자의 글이 아닌 「不自棄文」이 잘못 수록되었으니 책판에서 削去하도록 요청하였다.⁵⁰⁾

이는 『紫陽文集』 판각이 1567년 10월 이전에 전주에서 이미 있었고, 『紫陽文集』이 간행·유통되어 내용에 대한 검토도 이미 진행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1571년 5월에 유희춘이 전라감사가 되어 다시 이 책의 인본을 받자 담양의 집으로 보냈는데,⁵¹⁾ 「不自棄文」의 삭거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전의 삭거 요청 편지의 결과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전본 가운데 「不自棄文」이 수록된 것과 삭거된 것이 함께 전하기 때문이다. 수록된 것은 일본 궁내청 서릉부의 10권 10책

48) 『眉巖日記草』 丁卯 十月初六日. “全羅舊監司姜公暹來臨… 姜監司所贈書[]紀六冊 理學類編二冊 紫陽文集十冊 晦菴語錄五冊 草堂詩集 三冊.”

49) 『明宗實錄』 33卷, 明宗 21年 8月 28日(丙戌).

50) 『眉巖日記草』 戊辰 5月 4日. “余以奇明彥之言 悟不自棄文 實非公之作 當通書于完山府 使之削去 以書報明彥 明彥深喜其相合” / 『眉巖日記草』 戊辰 5月 6日, “於館上 紫陽文集 削去不自棄文 是日禺中 參禮察訪李師閔來訪告辭 余送簡于完山伯 令削去不自棄文板”(그런데 기대승의 『朱子文錄』 續集에는 이 「不自棄文」이 수록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속집은 송정황 등 기대승의 문인들이 기대승의 『朱子文錄』에 주자의 글을 추가한 것이다. 이 「不自棄文」에 대해서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1) 『眉巖日記草』 辛未 5月 27日. “光州性理群書大明律 全州天運紹統紫陽文集皆印來 卽送于潭家.”

완질본 『紫陽文集』으로 辛璉의 장서인(辛璉器之, 鷲山世家, 直齋)이 찍혀 있으며, 이 책에는 제10권 74장 앞면 제3행부터 『不自棄文』이란 題下에 다음 장인 75장 뒷면 제2행까지에 걸쳐 본문이 있고, 이어 같은 면 제10행에 ‘紫陽文集卷之十終’이라 표기되어 있다.⁵²⁾ 국내 개인 소장본에는 『不自棄文』이 없고, 권말제도 74장 앞면 제9행에 있어 『不自棄文』이 삭제된 판에서 찍은 것임을 알 수 있다.⁵³⁾ 그러나 『紫陽文集』이 중국에서 간행된 것이 전래되어 이를 重刊한 것인지, 조선 학자에 의해 편집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으며, 간행자도 확인이 어렵다.

여기서 문제가 된 『不自棄文』에 대해서는 『文宗實錄』에 ‘倪謙(明)이 印本 『考亭朱子不自棄文』을 안평대군에게 증여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런데 다른 『朱子大全』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1771년 洪啓禧版 『朱子大全』의 遺集, 즉 홍계희가 기존의 『朱子大全』에 없는 주자의 다른 글을 모아 2권으로 새로 추가한 것에는 수록되어 있다.⁵⁴⁾ 비록 洪啓禧版에 수록된 ‘朱子文集語類改刊凡例’에서 ‘遺集 가운데 몇 편은 의심이 되지만 傳疑의 예에 따라 그대로 둔다.’고 되어 있으나 『不自棄文』 부분에 그러한 언급이 없는 것은 16세기의 대표 성리학자인 이황·기대승·유희춘의 견해와는 다른 부분이다. 유희춘은 築伯昌의 글로 보면서 『古文大全』에 주자의 작품으로 수록된 것으로 인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황 또한 주자의 글이 아님을 의심하면서 기대승의 견해와 뜻을 같이 하였다.⁵⁵⁾ 홍계희보다 후대 인물인 홍석주 또한 洪啓禧版 『朱子大全』 가운데 유독 遺集 1권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을 詩에는 性理吟·讀書樂과 文에는 家政家訓·居家要言·不自棄文 등을 들어 설명하였다.⁵⁶⁾

『紫陽文集』은 『朱子大全』에 수록된 주자의 글 423편이 선정되고 422편으로 편집되어 있는 選集書이다. 『朱子大全』의 편성 순서에 따라 기사를 선정하였으며, 『朱子大全』 類目を 기준으로 권을 구분하지 않고 雜著·序·跋 등 동일 類目도 『紫陽文集』에서는 권을 나누어 편성하였다.

52) 藤本幸夫(2008), 605-606.

53) 『紫陽文集』이 처음 판각되었을 때 주자 문집의 정본이라고 하는 『朱子大全』에도 없는 『不自棄文』이 수록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紫陽文集』에 수록된 기사는 모두 『朱子大全』에 있는 기사들이며, 편차 구성도 대체적으로 『朱子大全』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朱子大全』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不自棄文』이 수록되었다는 것은 다른 문헌에서 찾아 넣었다는 것이다. 유희춘의 언급에 따르면 그 문헌은 『古文大全』이다. 1574년 선조가 ‘朱子七夕詩’를 묻자 유희춘은 ‘聯珠詩格’에 朱子の 詩로 되어 있으나 『朱子大全』에 없으므로 잘못 기록된 것이며, 이는 築伯昌의 『不自棄文』을 『古文大全』에 朱子の 作品이라 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宣祖實錄』 권8, 宣祖 7年 2月 4日(己酉)).

54) 『遺集』卷2의 題名 아래에 ‘先生寄母舅築伯昌戒其諸子之勤業’이라 하여, 朱子가 외숙인 築伯昌에게 보낸 주자의 글로 설명하고 있으며, 유희춘의 언급 관련 내용이나 기사의 출처 언급은 없다.

55) 『退溪先生續集』卷4 『答李剛而』, “不自棄文 滉少時見之 心已疑其非朱子語 奇明彦亦云云.”

56) 『弘齋全書』卷132, 故寔四. “臣爽周…臣於朱夫子全書 奉之若拱璧 信之如神明 而獨於遺集一卷 往往有不能無疑處 如詩而性理吟讀書樂 文而家政家訓居家要言不自棄文諸篇是也.”

<표 2> 『紫陽文集』의 체제와 구성

紫陽文集			朱子大全		
권차	구분	편수		권차	
1	封事·奏劄	8	16	11-13	
	封事·奏劄	8		13-14	
2	辭免	1	1	22	
	書	19	230	24-26	
3	書	36		26-30	
4	書	33		30-33, 35-37	
5	書	41		37-42	
6	書	76 ⁵⁷⁾		42-60	
7	書	25		28	60-64
	雜著	23			67, 69-72
8	雜著	5	50	73-74	
	序	44		75-76	
9	序	6	18	76	
	記	18		77-80	
	跋	44		81-84	
10	跋	2	46	84	
	箴2·銘1·贊4·上梁文1	8	8	85	
	祝文1·祭文11	12	12	86-87	
	碑	2	2	88-89	
	墓表	1	1	90	
	墓誌銘	7	7	91-92, 94	
	行狀·事實年譜	3	3	97-98	
소계		422	422		

『朱子大全』의 비교하여 『紫陽文集』의 편집 방식을 보면, 한편을 대상으로 전체를 수록한 경우, 앞부분을 뽑은 경우, 뒷부분을 뽑은 경우, 중간 부분을 뽑은 경우, 여러 부분을 뽑아 나열한 경우 등 단순 발췌 편집을 보인다. 반면에, 하나의 제명 아래에 『朱子大全』에서 두 편을 뽑아 행을 구분하여 나열한 경우(『紫陽文集』 卷5-12-01, 卷5-12-02, 與郭冲晦라는 題下에 『朱子大全』 卷37-27, 卷37-28을 나열), 『朱子大全』의 두 편을 발췌하여 행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하여 한 편으로 편집한 경우(『紫陽文集』 卷6-21 答潘叔昌, 『朱子大全』 卷46-32의 앞부분과 卷46-30의 뒷부분을 연결

57) 『朱子大全』에서 77편을 선정하였으나 권45의 36번째 기사인 ‘答廖子晦’를 『紫陽文集』에서는 각각 ‘答廖子晦’라는 제명을 두고 권6의 11번째, 12번째 기사로 분리하여 2편으로 만들었다. 이와 반대로 『紫陽文集』 권6의 21번째 기사는 『朱子大全』 권46의 32번째 기사인 ‘答潘叔昌’의 앞부분과 30번째 기사인 ‘答潘叔昌’의 뒷부분을 이어 붙여서 한 편으로 편성하였으며, 『紫陽文集』 권6의 35번째 기사는 『朱子大全』 권50의 11번째 기사인 ‘答潘恭叔’과 15번째 기사인 ‘答潘恭叔’의 중간 부분을 발췌하여 한 편으로 편성하였다. 그 결과 『紫陽文集』은 76편으로 선정 편수와 차이를 보인다.

/『紫陽文集』卷6-35 答潘恭叔, 『朱子大全』卷50-11의 중간 일부와 卷50-15의 중간 일부를 뽑아 나란히 편집), 『朱子大全』의 1편을 2편으로 나눈 경우(『紫陽文集』卷6-11, 卷6-12는 『朱子大全』 권45의 36번째 기사인 答廖子晦를 부분 발췌하여 두 편으로 나누었음) 등이 있다. 『朱子大全』 기사를 선정할 때 細註의 처리는 생략된 경우(『紫陽文集』卷4-4, 卷5-27, 卷5-28, 卷6-28, 卷7-18 등), 그대로 둔 경우(『紫陽文集』卷5-39, 권6-30 등)가 함께 나타난다. 『朱子大全』에 누락된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보인다. 『紫陽文集』卷7의 22번째 기사인 答劉朝弼을 보면, 『朱子大全』卷64-44를 선정한 것인데, 『朱子大全』에서는 4자가 공란으로 비어 있다. 柳希春版에서는 비워둔 채 ‘疑脫道聽塗說四字’란 두주가 있으며, 元斗杓版은 두주 없이 공란이며, 洪啓禧版 역시 비워둔 채 권말 考異에 ‘也下四字恐道聽塗說’이란 주석이 있다.

『紫陽文集』은 현재까지는 1567년 이전에 전주에서 간행된 것만이 확인되며, 이후 重刊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朱子大全』 이외의 주자 문집이 간행·유통·연구에 그친 것과는 달리 『紫陽文集』은 柳大時(1657-1738)에 의하여 註解가 이루어져 비록 간행되지는 않았지만, 『紫陽文集註解』가 필사본 2책으로 전한다.⁵⁸⁾

4. 朝鮮後期 『朱子大全』의 刊行

4.1 元斗杓版(1635, 木板本)

元斗杓版은 전라감사 원두표가 간행한 최초의 목판본 『朱子大全』이다.⁵⁹⁾ 원두표는 후금과 긴장 관계에 있던 당시 조선의 상황을 북방의 금나라와 대치하고 있던 남송과 동일시하면서 주전론을 내세웠던 주자의 정책들이 수록되어 있는 『朱子大全』을 본받아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책으로 인식 하였으나 유통되는 책이 희귀하여 유학자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널리 보급하여 집집마다 『朱子大全』을 소장하게 하고자 개인적 차원에서 집안 자제들과 전존본을 수습하였으며, 전라감사로

58) 국내 고서 경매에 필사본이 출품된 적이 있으며, 권두에 1733년 작성의 ‘紫陽文集註解小識’가 있다.

59) 조선시대 중앙정부의 출판시스템이 일부 수요를 충족해도 될 경우는 활자로 인출하여 해당 수요자에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수요가 많거나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파급을 위한 강한 의지가 있을 경우는 활자 인출 후에 각 도의 감영 등 지방의 거점 도시에 번각을 명하여 널리 보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세종조 四書五經大全의 分刊, 윤음 등 사례). 『朱子大全』이 16세기에 활자로만 인출되었다는 것은 수요나 보급에 대한 의지가 목판본 번각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였고, 한정적인 소개의 정도로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 정본 『朱子大全』을 마련한 유희춘도 교서관 제조가 되면서 『朱子大全』보다 『讀杜詩愚得』을 먼저 인출하려고 생각하다가 허봉 등 유림의 요청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비록 소량의 활자본이었지만 우선 보급이 이루어지고, 이황 등 학자의 연구와 주석을 담은 선집서가 간행·보급되면서 17세기부터는 경전의 위상만큼 수요와 보급 의지가 높아져 목판본 간행으로 이어졌다. 원두표의 목판본 간행은 『朱子大全』의 대중화에 기여하여 누구나 공유함으로써 사상적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부임하여 사찰에서 각수 수백명을 동원하여 5개월여 만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⁶⁰⁾

元斗杓版의 특징은 우선, 이전 판본에 비하여 두주의 양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감 결과가 반영된 두주가 등장하는 柳希春版과 일부 권차를 비교한 頭註 현황⁶¹⁾은 <표 3>과 같으며, 원두표는 柳希春版보다 상당 부분 두주를 추가하였다. 여기에 제시한 9권 분량으로 한정되지만, 柳希春版의 30개보다 6배 많은 181개의 두주가 있고, 공통되는 두주는 13개로 비율이 낮다. 이는 원두표가 유희춘 교정을 참고하면서 『朱子大全』 전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교감을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두주로 남겨 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였음을 말한다. 이러한 元斗杓版의 두주 수량은 그가 ‘낙질본 수습과 완본 제작 후의 간행’이라는 단순한 간행자 역할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元斗杓版은 국왕의 윤허를 받아 진행된 것이 아니라 朱子에 심취한 개인이 당시 수요에 부응하고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면서 충분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표 3> 元斗杓版과 柳希春版의 두주 수량 비교(일부)

권차	판수	두주 수량		공통	공통 아닌 사례(柳希春版/元斗杓版)
		柳希春版	元斗杓版		
30	46	0	7	0	
31	57	1	18	1	
52	72	3	24	2	□疑是合字 / 본문 수용
60	68	3	25	3	
63	62	3	26	3	
66	56	3	29	2	獨疑當作盖 / 唐本圍圍作圓圍
67	40	1	14	1	
별9	33	15	20	1	元斗杓版 본문 수용 3개, 미수용 11개
별10	32	1	18	0	勸下疑脫諡字 / 唐本勸下有賞字
소계	466	30	181	13	

元斗杓版 두주의 특징으로는 첫째, 柳希春版 교정주의 수용에 일관성 있는 원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元斗杓版의 柳希春版 두주의 반영 사례를 보면, ① 두주를 그대로 수용한 경우, ② 두주의 글자 교정 내용을 본문에 수용하면서 두주를 삭제하였으나 그런 내용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⁶²⁾ ③ 본문에 수용하지 않으면서 두주까지 삭제한 경우,⁶³⁾ ④ 두주를 삭제하고 별도로 다른 두주를

60) 『承政院日記』 仁祖 13年(1635) 4月 24日(癸卯), 이 원두표판의 초쇄본으로는 永安尉(선조 사위) 洪柱元(1606-1672)의 장서인이 있는 고려대 소장본(대학원 D1 A1288)이 대표적이다.

61) 책판의 보관 과정에서 탈락되었거나 인출시의 누락, 훼손 등으로 인한 보각, 보충 등으로 현존하는 인출본에서 두주가 있고 없는 차이가 발견되어 정확한 숫자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서는 두주의 현상을 살피기 위하여 그 가운데 일부를 견본으로 살펴보았다. 頭註의 확인은 학봉 내사본(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과 개인 소장의 초쇄 元斗杓版으로 하였다.

62) 별집 권9의 제3장, 柳希春版의 두주인 ‘□當入輒字’와 ‘□疑是當字’가 삭제되고 각각 본문에 ‘輒’자와 ‘當’가 기입됨.

기입한 경우⁶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교정의 대본으로 柳希春版이 완질이 되지 못하여 金安國版이나 기타 간본을 보고 교정한 것에서 연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⁶⁵ 또한 유희춘 교정주 수용의 원칙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다수 인원의 분담 교정 등으로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았음을 말한다.⁶⁶

둘째, 두주는 誤字·脫字·衍字 등 문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표 3>을 기준으로 9권 분량에 기입된 두주 181개 가운데 唐本과 비교하여 글자가 다르거나 도치된 경우에 그 내용을 표기하는 ‘唐本〇作〇’ 등의 방식이 152개로 84%에 달한다. 그 다음이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서 교정자 개인의 추정을 나타내는 ‘〇或疑〇’ 등과 같이 글자 교정에 대한 것이 22개이다. 글자 교정 가운데에는 ‘切心經附註作功’과 같이 『心經附註』의 글자와 비교하였음을 표기한 사례도 있어 『朱子大全』 이외에 朱子の 글이 수록된 다른 문헌까지 범위가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글자 교감 이외에 주목되는 것은 ‘退溪曰’과 같이 이황의 주석을 인용한 경우가 다수 등장한다는 것이며, <표 3>의 조사 범위를 기준으로 6개가 나온다.⁶⁷

넷째, 두주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 별집 권9의 제9장을 보면, 元斗杓版에 ‘唐本面作而’라는 두주가 있다. 그런데 柳希春版에는 두주가 없고, 본문을 보면 元斗杓版과 柳希春版 모두 ‘面’이 아니라 ‘而’로 되어 있어 교감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元斗杓版 두주는 柳希春版의 두주를 참고하면서도 수용에서는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고, 唐本과의 비교를 통한 글자 교정 결과의 기록이 대부분이며, 柳希春版의 사례와 같이 李滉의 주석을 다수 반영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元斗杓版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의 嘉靖版(1532)을 본문에 수용한 것이며, 이는 이전 판본에서는 嘉靖版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元斗杓版을 보면 金安國版·柳希春版에는 없는 글자나 문장 단락이 추가되는 현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권52의 19번째 기사인 『答吳伯豐』의 경우, 앞의 金安國版·柳希春版은 ‘先生謂史記近是’로 되어 있으나 元斗杓版에는 ‘先生謂二說不同史記近是’라고 ‘二說不同’이 네 글자가 추가되어 있다. 또한 이 편지는 오필대가 『孟子』 구절에 대해 묻고, 朱子가 답하는 형식의 장문의 편지인데,

63) 권14의 제22장 후면 제2행(甲寅行宮便殿奏筭四), 柳希春版의 두주인 ‘已伏一作既歸’가 없음.

64) 별집 권10의 제24장 후면, 柳希春版은 ‘勸下疑脫諭字’, 元斗杓版은 ‘唐本勸下有賞字’로 다른 두주가 기록됨.

65) 元斗杓版 권50 24장 뒷면 ‘答潘知叔’이란 제명의 두주에는 ‘唐本知作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金安國版은 두주에서 말한 唐本과 같이 ‘答潘恭叔’으로 되어 있으나 柳希春版은 두주 없이 ‘答潘知叔’으로 되어 있다. 이는 권50의 경우 金安國版이 아닌 柳希春版을 저본으로 교정을 하면서 唐本과 비교하였음을 보여 준다.

66) 홍계희의 『改刊凡例』에서도 임란 이후의 목판본에 오류가 많고 유희춘의 범례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67) ‘退溪曰’로 시작하는 퇴계 주석 가운데 권63의 <答胡伯量> 부분인 7장에는 ‘退溪曰按此條所答非所問問答之間必有闕文’, <答孫敬甫> 부분인 29장·30장에는 ‘退溪曰此條曾見於三卷答程可久首書’라는 두주가 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이황의 『朱子書節要』에서 해당 주석은 보이지 않고, 柳希春版에서도 해당 두주는 없기 때문에 원두표가 다른 이황의 『朱子大全』 주석서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金安國版·柳希春版에는 없던 오필대의 물음 2개(두번째, 세 번째)가 元斗杓版에서 추가되었다. 중국의 嘉靖版도 元斗杓版과 같고, 洪啓禧版(1771)도 元斗杓版과 같다. 元斗杓版에 판각된 ‘唐本語作誤’라는 두주도 嘉靖版과 같다. 이는 元斗杓版의 저본으로 唐本 가운데 嘉靖版(1532)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元斗杓版에는 목록에 이어 가정 임진년(1532) 潘潢의 嘉靖版 발문이 있지만, 金安國版·柳希春版이 모두 嘉靖版 간행 이후에 간행되었지만, 이 嘉靖版 발문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潘潢의 발문이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과 권52의 『答吳伯豊』의 사례로 볼 때, 16세기 인출된 2종의 『朱子大全』은 嘉靖版 이후의 판본이지만 嘉靖版이 반영되지 않았고, 天順版을 간행의 저본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元斗杓版은 최초의 목판본으로 책판의 보각이 필요할 정도로 다량 인쇄되었다. 이는 이전의 두 차례 인쇄가 100여 부 인출에 그쳐 『朱子大全』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元斗杓版은 『承政院日記』에 수록된 내용 정도로 소개되어 그의 역할이 단순한 ‘완본 마련에 이은 번각본 제작 보급’ 정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嘉靖版 등 다양한 『朱子大全』 판본을 수용하였고, 『心經附註』 등 기타 서적을 참고하여 『朱子大全』 전체에 대한 교정을 하였으며, 범례 등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여러 판본과의 교감을 거친 결과를 다량의 두주로 남기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업적이다.

元斗杓版은 발문이나 간기, 범례 등의 기록이 없고, 이전의 金安國版, 柳希春版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10행 18자에 ‘내향3엽화문어미’를 보이는 등 형태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해당 특징을 보이는 판본들을 보면 다양한 여러 판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1635년 판각 이후 빈번한 인쇄 등으로 책판이 마모되어 보각과 개각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대량 改刊은 1744년 원두표의 후손 元景夏(1698-1761)의 요청과 영조의 승인으로 改修가 진행되었고,⁶⁸⁾ 3개월 여 후인 1745년 4월에 改刊한 『朱子大全』이 진상되었다.⁶⁹⁾ 그러나 이 改刊본은 판각 이후 얼마 되지 않은 1760년대에 소실되면서⁷⁰⁾ 洪啓禧版 『朱子大全』의 간행으로 이어졌다.

4.2 洪啓禧版(1771, 木板本)

洪啓禧版은 홍계희가 교정한 『朱子大全』을 원고본으로 하여 1771년(영조 47)에 전주에서 간행한 목판본을 말한다. 홍계희는 이전의 책판이 화재로 소실되자 자신이 교정하면서 영조에게 간행을 요청하였으며, 왕명을 받은 전라도관찰사 尹東昇에 의하여 완영에서 개판되었다.

홍계희는 주자를 존숭함이 어느 나라보다 컸던 시대적 상황에서 당시 유통되던 『朱子大全』과

68) 『承政院日記』, 英祖 20年(1744) 12月 15日. “上曰 朱子大全·綱目板猶存耶 景夏曰 板本雖存 而棄置多傷 剝不堪印 故臣將改刊 而到任未久 旋即遞還 未及始役 若干板子備留 且以修改之意 言于新伯矣 上曰 申飭道臣 使即修改 可也.”

69) 『承政院日記』, 英祖 21年(1745) 4月 5日. “… 暉曰, 完營方改刊朱子大全而印進矣.”

70) 『承政院日記』, 英祖 46年(1770) 10月 20日. “嶺南所在語類板 燒燼於數十年前 湖南所在大全板 燒燼於數年前.”

『朱子語類』에 잘못된 것이 많은 것을 애통해 하였다. 그 와중에 화재로 두 책판 모두 소실되자 재간의 논의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교정을 진행하였다. 교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자신이 몇 년 전부터 改修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교정을 진행하여 기축년(1769) 한 해는 中草를 修正하였고, 경인년(1770) 한 해 동안은 간본을 正書하였으니, 신묘년(1771)에는 판각하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될 것이니 영남과 호남에 각각 나누어 간행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책판의 마련을 위하여 미리 좋은 판재를 골라 소금물에 삶아 겨울 내내 말리는 등 책판 제작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유희춘의 『校正凡例』의 사례처럼 자신의 『改刊凡例』를 합류하는 등⁷¹⁾ 교정에서 간행까지 홍계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홍계희가 『朱子大全』을 간행한 것은 스스로 조선에서 주자의 계승자로 자부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²⁾

홍계희는 이전 판본으로 다량 유통되었던 元斗杓版에 오류가 많다고 보고 이황의 교감이 두주로 기록되어 있는 옥산서원 소장의 柳希春版 내사본을 얻고, 중국에서 구해 온 10여 종의 판본과 朝鮮版을 대조하면서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여 이 책을 교정하였다.⁷³⁾

洪啓禧版은 기존의 판본들과 비교할 때, 행자수의 차이, 考異의 증가, 『附錄』과 『遺集』의 추가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항은 그가 작성한 『改刊凡例』에 보인다.

우선, 기존의 10행 18자에서 10행 22자로 변경하였다. 행수는 『朱子大全』을 따르고, 한 행의 글자 수는 『朱子語類』를 따랐으며, 永樂大全과 성균관 간행 경서가 10행 22자라는 점도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여러 본을 비교하여 교감하는 과정에서 주석이 증가하면서 각 권의 말미에 수록된 考異의 분량이 늘어났다. 또한 기존 판본에는 『原集』 100권, 『續集』 11권, 『別集』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洪啓禧版에서는 『朱子大全』에 누락된 주자의 글을 『遺集』 2권으로 추가하였으며, 주자의 실기·연보 등에서 주자에 관한 자료를 모아 『附錄』 12권을 추가하였다. 『附錄』 권2에 주자의 16대손 朱玉의 발문이 있는 朱子 遺像도 들어가 있다. 또한 『續集』은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제목 없이 나열하고 있어 편지의 구분을 위하여 한 행을 다 채우고 편지가 끝난 경우 ‘ㄴ’ 기호⁷⁴⁾를 사용하여

71) 『承政院日記』 英祖 46年(1770) 10月 20日. “臣嘗以朱子大全語類鄉本之多譌誤爲憫 一欲校正而未能矣 嶺南所在語類板, 燒燼於數十年前 湖南所在大木板, 燒燼於數年前 … (중략) … 己丑(1769)一年修中草 庚寅(1770)一年書刊本 欲請以辛卯(1771)入刊矣 … (중략) … 春末夏初當畢 如蒙分付兩南 依舊例入刊 則當以校本送於芸閣 以爲分送兩南入刻之地敢達 上仍命書傳教曰 今聞奉朝賀所奏 朱子大全與語類 勤勤校正 訖工不遠 而正本來到芸閣後 大全令湖營 語類令嶺營刊印後 大殿與東邸 各一件印進事分付.”

72) 홍계희는 『四書栗谷先生諺解(1749)』, 『栗谷全書(1749)』, 『醇言(1750)』, 『書社輪誦(1750)』, 『朱子性理吟(1754)』 등 이이와 주자 관련 서적을 정리·간행하였으며, 『朱文公先生便殿第二奏筭(1752)』를 편찬하여 올리면서 조선 학자로는 유일하게 ‘주희 이후에는 도통이 끊어졌으니 선조는 요순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이의 주차를 신고, ‘저하가 주희와 이이 양현의 말을 완미하고 분발한다면 동방의 억만년 무강의 기틀이 될 것이다’라고 하여 주희의 도통이 이이에게 이어진다는 의식을 보여주면서 서적 편찬을 통해 스스로 ‘주자-이이-송시열-이재’를 잇는 학통을 주도하고자 하였다(신항수, “홍계희의 편찬 및 간행 활동과 도통 의식,” 『역사와 담론』 제66집(2013), 154-155).

73) 『改刊凡例』. “龍蛇之難 編帙散佚 雖有難後所刻 不但譌誤甚多 且考之柳公凡例 多有不合者 以此知其非柳公所校之本也 近得難前印本一件(玉山書院所藏 宣廟朝頒賜者而 間有頭註 書以李滉云云 似經文純公校勘) 譌誤差少 似是乙亥校本而 却無柳公凡例未知其故也 燕市購來者有十數本 校之我國前後本 各有得失 今就諸本 參互校讎 舍短取長以成此本.”

편지의 종결을 표기하였다.

이상과 같이 주자 문집의 정본인 『朱子大全』은 김안국에 의하여 1543년에 建安書院版을 重刊한 天順版(1460)을 기본으로 처음 간행되어 권벌·이황 등 조선 학자들에게 보급되면서 이해·학습을 위한 각종 서적의 편성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가져왔다. 이후 활자로 소량 인출된 점, 오자 등 교정의 문제, 유림의 간행 요청, 전란으로 인한 산실, 화재로 인한 소실 등을 이유로 조선 시대 네 차례 간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舊版을 단순히 다시 간행하는 단계를 넘어 여러 이본을 참고하여 기존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부단한 교감의 노력이 동반되었다.

5. 結 言

이상과 같이 『朱子大全』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간행된 주자의 문집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에 전래·간행된 『朱子大全』은 1239년(嘉熙 3)에 王栻가 建安에서 『原集』 100권을 간행한 이후, 1245년 王遂가 『續集』 10권, 1250년 徐幾의 『續集』 1권, 1265년(咸淳 元年) 余師魯의 『別集』 10권이 추가되면서 建安書院에서 121권으로 완성되어 ‘晦庵先生朱文公文集’이란 명칭으로 간행되면서 성립되었다. 이후 이 건안서원본을 기본으로 천순본(1460), 성화본(1483), 가정본(1532), 만력본(1605)으로 중간되었다.

둘째, 주자의 문집은 15세기까지는 조정의 구서 목록에 포함되는 희귀본이었다. 그러나 성리학 서적의 조선 수입과 보급 과정에서 『자치통감강목』·『근사록』 등 주자 편저의 다수가 간행·보급되어 경연과 관학의 주요 교재로 활용되고, 일부 편저는 학습을 통한 주석까지 이루어지면서 주자의 편저는 높은 관심과 활용도를 보였다. 16세기에 들어 종종 즉위와 주자 편저를 기본으로 학습한 사림의 성장으로 주자의 삶과 사상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었고, 조선 학자들이 주자 문집 수록 기사를 뽑아 책으로 간행한 선집서가 등장하면서 주자 문집의 정본인 『朱子大全』의 간행이 1515년, 1518년에 두 차례 시도 끝에 1543년 비로소 간행으로 이어졌다.

셋째, 『朱子大全』은 建安書院版의 중간본인 天順版(1460)을 저본으로 1543년 교서관제조 김안국의 주도로 을해자훈입보자본이 교서관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이후 유희춘(1575)이 교서관제조가 되어 유림의 요청을 받아 金安國版의 오류를 바로 잡고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왕의 윤허를 받아 체계적인 교정을 거친 보주을해자본이 교서관에서 인출되었다.

① 金安國版은 활자 인쇄로 소량 유통되고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조선학자들에게 『朱子大全』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개 이후 조선 학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 김인후의

74) 이 기호는 『續集』 뿐만 아니라 권31의 11장 뒷면 제1행 등 여러 곳에 다수 보인다.

『朱子經筵講義(1549)』, 이황의 『朱子書節要(1556)』, 기대승의 『朱子文錄(1557)』, 성혼의 『朱門旨訣(1571)』 등 선집서의 간행으로 이어져 주자와 『朱子大全』 연구의 길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다.

② 柳希春版은 柳希春이 1573년 1월부터 1575년 6월까지 교서저작 최경희·황경중, 창준 김세걸과 함께 교정·인출을 진행하였으며, ‘校正凡例’를 두고 체계적인 교감을 진행하여 金安國版의 오류를 바로잡아 정본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③ 『朱子大全』이 조선에서 간행 보급되면서 방대한 분량은 학습자의 접근에 제한점으로 인식되어 수록 내용의 일부를 뽑은 선집서 성격의 주자 문집도 전래, 간행되었다. 吳訥(明)의 『晦庵詩文抄』가 1549년 상주에서, 비슷한 시기 황해도 해주에서 明版을 저본으로 각각 번각되었다. 1560년 무렵 『朱子大全』에서 詩를 선집한 10권 3책의 『晦庵先生朱文公詩集』이 慶州에서 간행되었으며, 1567년 무렵 『朱子大全』에서 산문 기사 432편을 뽑은 10권 10책의 『紫陽文集』이 全州에서 간행되었다. 이들 3종의 책은 16세기 한 두 차례 일시적인 간행에 그쳤다. 이는 『朱子大全』이 계속 간행되었고, 조선 학자들이 『朱子大全』의 選集書를 편성하여 그 역할을 대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紫陽文集』은 『朱子大全』에 없는 「不自棄文」이 논란이 되어 판각 후에 削去되기도 하였으며, 1733년 柳大時의 『紫陽文集註解』가 필사본으로 전한다.

넷째, 조선 후기는 전주에서 각각 원두표(1635), 홍계희(1771)가 주도하여 활자본이 아닌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① 元斗杓版은 원두표 개인이 당시 조선을 남송의 현실과 동일시하면서 주자에게서 현실 타계책을 찾고자 집안 자제들과 잔본을 수습하고 교정한 것이며, 처음으로 목판에 판각된 것이다. 목판 판각으로 대량 보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란 이후 증가된 수요에 부응하여 『朱子大全』의 포괄적인 공유가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5개월 만에 목판 판각이 이루어졌고, 잦은 인쇄로 책판이 마모되어 여러 차례 보강되었으며, 1745년에는 대량 改刻이 이루어졌으나 얼마 후 책판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元斗杓版은 이전 활자본과 달리 嘉靖版(1532) 『朱子大全』이 본문에 수용되고 두주가 대폭 증가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원두표가 단순한 간행·보급자의 역할을 넘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두표판으로 인하여 『朱子大全』이 저변 확대되어 공유되면서 연구가 심화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② 洪啓禧版은 元斗杓版에 잘못된 것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여러 이본을 참고하고 ‘改刊凡例’를 마련하여 교감하는 한편, 기존 판본에 없는 주자의 글을 모은 「遺集」 2권과 주자에 관한 자료를 모은 「附錄」 12권을 추가하여 주자 문집을 집성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홍계희는 『朱子大全』에 대한 성과를 집성·보완하여 완성본을 간행한 것은 朱子를 계승한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 주자는 성현의 반열이었으며, 계승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의 문집인 거질의 『朱子大全』을 교정, 간행한다는 것은 대내외에 문인임을 말하는 한 방법이었다. 조선시대 朱子와 『朱子大全』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그러한 주자에 인식이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교정을 통하여 ‘소개-정본화-대량보급-완성’의 단계를 거치며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식. “宋時烈的 『朱子大全』 연구와 편찬 - 『朱子大全筭疑』 · 『節酌通編』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43집(2008). 71-95.
- 강문식. “趙翼의 학문 경향과 『朱書要類』 편찬의 의의.” 『한국문화』 제39집(2007). 97-133.
- 권용인. “愚伏 鄭經世의 『朱文酌海』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5.
- 김문식. “朝鮮本 『朱子大全』의 간행과 활용.” 『조선시대 문화사 1』. 서울: 일지사, 2007.
-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集部』.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8.
- 류탁일. “『朱子書節要』 注釋 脈絡과 그 注釋書 - 외래문헌의 한국적 수용(2).” 『서지학연구』 제5·6 합집(1990). 5-22.
- 류탁일. “『朱子書節要』의 注釋書에 對하여.” 『퇴계학논총』 제3집(1997). 45-63.
- 柳希春 著, 朝鮮史編修會 編. 『眉巖日記草』. 서울: 국학자료원, 2001.
- 박광현. “湖林博物館 所藏 金屬活字本の 現況과 價値.” 『서지학연구』 제56집(2013). 115-149.
- 東景南. 『朱熹年譜長編』.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 송희준. “『朱子書節要』와 『朱書百選』의 비교 연구.” 『퇴계학논집』 제15집(2014). 257-288.
- 신두환. “16世紀 朝鮮의 『朱子大全』 刊行과 그 學問的 動向 研究.” 『남명학연구』 제52집(2016). 43-78.
- 신항수. “홍계희의 편찬 및 간행 활동과 도통 의식.” 『역사와 담론』 제66집(2013). 143-166.
- 윤병태. “退溪書誌의 研究.”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집(1977). 87-152.
- 윤병태. “退溪의 著書와 그 刊行 - 朱子書節要를 중심으로(退溪書誌의 研究 其二).”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7집(1978). 83-155.
- 尹波·郭齊. “朱熹文集版本源流考.” 『西南民族大學學報』 제25집(2004). 447-453.
- 정선모. “安鼎福의 『朱子語類節要』考.” 『한국실학연구』 제25집(2013). 97-132.
- 정호훈. “조선후기 『朱子封事』의 간행과 활용.” 『한국사상사학』 제37집(2011). 75-111.
- 최경훈. “『朱子大全』 選集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8.
- 최채기.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그 刊行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
- 최채기. “한국에서의 朱子文集 수용방식” 『서지학연구』 제60집(2014). 169-206.
-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